

투데이 칼럼

에너지 고속도로, 전북의 미래 경쟁력 키우는 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주차차가 도로를 탄다. 사무실에서는 AI 기반 서비스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 후에는 병방기기와 각종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전기기는 이제 단순한 생활 필수재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밝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원하는 곳까지 제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산업단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전력망이다. 그래서 오늘날 전력망은 흔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불린다.

#전북의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전력망
최근 전북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새만남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첨단 제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갖춘 전북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단으로는 부족하다. 공장이 가동되고, 칠



이영현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략경영부 대리

단산업이 성장하려면 충분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사람의 몸에 신경과 혈관이 함께 기능해야 생명이 유지되듯, 발전설비와 전력망 역시 어느 하나만으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발전과 송전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전력망 적기 확충은 지역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상생과 소통으로 이어가는 에너지 고속도로
북부 전력망은 현탁을 세우고 전선을 연결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의 이해와 신뢰, 그리고 충분한 소통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소통과 상생

의 자세일 것이다.

한전 전북본부 역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직원들의 자발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등화로 지난해 전북 4개 지자체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윤해는 완주·정읍·고창 등 10개 지자체로 대상을 확대해 총 1억 5,0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봉사나 지원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이자 실천이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자립도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력설비를 직접 둘러보고 전지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교육,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은 주민들이 전력망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력망은 우리 삶과 뗄려진 사실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산업,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며 느끼는 것은 전력망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사전 자체보다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부족한 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충분한 정보와 진실 어린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오해는 줄어들고 신뢰는 쌓인다. 특히 새만남은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는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이 함께 모여드는 국가 핵심 전략 부대다. 국내외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력과 양수 같은 기반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전력망은 새만남에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다.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의 잠재력과 미래산업의 가능성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제때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이 완성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와 역지사지의 작은 실천은 신뢰를 쌓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권위보다 배려를, 갈등보다 소통을 우선하는 문화가 조직 곳곳에 자리잡아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경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재언

‘역지사지의 마음’ 갑질·을질 막는다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직에서는 직급이나 연차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관행, 또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갑질’과 ‘을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갑질은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을질은 자신의 피해자적 위치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허위·과장된 주장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권위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 직급과 경력에 관계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조직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특히 ‘나라면 어떻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은 갑질과 을질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사람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조직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갑질과 을질 근절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권위를 앞세우지 않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청년 문장수업 서머싯 몸의 ‘서밍 업’

‘달과 6센스’의 저자 서머싯 몸(1874~1965)은 10세 전에 부모를 잃고, 말 더듬는 버릇 때문에 어려서 자신감이 약했다. 하지만 그는 삶과 예술에 관한 질문들에 일찍부터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문학을 물론 역사와 철학, 과학 분야까지 온갖 책을 섭렵했고 오랜 시간 연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논지를 정리해 출간한 책이 바로 ‘서밍 업’이다.

‘서밍 업’은 서머싯 몸의 자전적 회고록으로 그의 주요 관심사에 따라 문장, 연극, 소설, 인생의 4파트로 나누어 있다.

20세기 초 영국은 수확이 많은 화려한 문장이 유행이었는데, 서머싯 몸은 자신의 문체가 여러 면에서 빈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글을 잘 쓰기 위해 17~18세기 유명 문인들의 서적이나 성서를 빌

사하며 읽었고, 자기 문체의 장단점을 파악해 갔다.

그는 또한 문장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이 애매모호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외로 분명하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구상해내지 못하는 작가의 지적능력 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소설을 창작했는데, 인간의 끝없는 ‘면도날’ 같은 유령한 장면소설 외에도 총 90여 편의 단편소설을 집필하기도 했다. ‘서밍 업’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예술과 인간의 본질에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서밍 업’을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힌트를 얻거나 지적 성장을 자극할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行’ 택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감독 커리어 통산 2회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불명예 퇴진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사퇴 직후 전격 미국행을 선택했다.

여기에 해외 매체를 역시 한국 축구의 영웅에서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그의 행보와 향후 거취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사실상 월드컵 참사 직후 해외 도파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감사가 추진되는 등 한국 축구를 대참사로 몰고 간 행정적 책임 추궁이 목전에 다가오자, 사실상 한국을 등지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출국 당시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이 국회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자 홍명보 전 감독은 “모르겠다. 제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뒤이어 밝혀진 실상은 더

욱 충격적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명보 전 감독이 출국 전 측근들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전격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 전 감독의 행보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홍 전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 불투명했던 선임과정과 월드컵 참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그가 해외에 체류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홍 전 감독은 법적·행정적 압박을 통째로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LAFC)을 제외하는 도박을 감행했다가 대참사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